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2016년 총선(여소야대)과 2017년 대선(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거머잡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학자 키(V. O. Key)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당들 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는 선거를 '중대 선거'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수차례의 중대 선거가 있었다. 대공황 시절 민주당 루즈벨트 후보가 '큰 정부론'과 '뉴딜 정책'을 내걸고 승리했던 1932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이 대선 이후 미국에선 민주당 우위의 정당 체제가 수십 년간 지속

보수와 진보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 선거를 중대 선거로 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일단 유보한다. 방송3사의 지방 선거 출구 조사에 따르면, 진보(29.2%)와 보수(24.9%)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고 중도(39.8%)가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진보 1.2%p 증가, 보수 2.2%p 하락, 중도 1.5%p 증가 등 유권자의 이번 지형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보수층의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단지 야당이 싫어서 여당을 지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방 선거 직후(6월16일~17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정당을 계속 지지하겠는가'란 질문에 '다른 정당으로 지지를 바꿀 수 있다'가 58%인 반면, '계속 지지하겠다'는 36%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사회 균형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보수 정당 궤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아직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지탱할 만한 확고한 유권자 재편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압승했고, 200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룩했으며, 2008년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보수 우위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년 뒤에 치러진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완패했고, 2017년엔 정권을 뺏겼다. 민주당이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만을 버리고 계파 권력 투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벌써부터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이 분화·재편되고 있다. '햇속까지 친문'이라는 '빠문', '진짜 친문'이라는 '진문', '범 친문'이라는 '범문' 등이 등장했다. '발세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뜻을 담은 '부엉이 모임'도 부각된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에서 원박·진박·범박 등이 등장했고, 청와대는 '빠박 문고리 3인방'이 판을 치면서 '폭망'했다. 선거 트러플 크라운을 이룩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

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처럼 유능함과 도덕성 및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대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보수의 가치에 진보의 정책을 융합하는 것이다. 과거 '보수 우파'에서 '진보 우파'라는 제3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가령, 진보의 가치인 복지와 평화를 '피꾸기식 복지', '위험한 평화'로 폄하해 기보다는 '건강한 복지', '안전한 평화'를 내세우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보수의 최대의 적은 조급함과 분열이다. 단기간에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호흡하면서 참회하고, 혁신하고, 실력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쪼개져 있는 보수 정당들은 총선 전 빅 텐트로 모여 통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과 환멸의 주기는 지극히 짧다. 분명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이번 지방 선거가 '중대 선거'였는지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다.

종교칼럼



조진무  
피아골피정집 관장 신부

다른 계곡들이 다 그렇겠지만, 요 며칠 새에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도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최근 태풍 뿌리바람의 영향으로 뿌러진 장맛비 때문입니다. 이 계곡은 이번에 많은 비를 흘러내려 보냈지만 아마도 산 아래 땅 속에도 많은 물을 머금게 할 것입니다. 문득 작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극심했던 가뭄 때가 생각났습니다. 큰 가뭄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계곡물을 보고 경이롭다고 여겼었습니다. 지리산 위쪽에는 분명 샘물 원천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좀 더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공극(空穴) 때문이었습니다. 지표면 밑에 있는 토양의 입자 사이의 틈을 공극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토양을 구성하는 바윗돌이나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토양 입자의 크기가 고를수록 입자 사이의 틈이 많아 공극이 커진다

삶의 공극(空隙)

고 합니다. 바로 이 공극(틈)에는 흡착된 물(공극수 또는 간극수)이 있고, 계곡에서는 이 물을 계속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큰 가뭄에도 불구하고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극은 온갖 식물들의 뿌리에게는 수분을, 온갖 미생물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삶의 자리를 제공해주면서 공극이 담고 있는 물과 공기를 통해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토양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 혜택은 우리 인간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셈이지요. 저의 피아골피정집에는 주로 천주교 신자들이 '피정'을 하러 자주 찾아옵니다. '피세정령'(避世靜靈), '피속주정'(避俗靜靜)을 줄여서 부르는 피정(避靜)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요한 곳에서 머물면서, 묵상과 침묵,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조용히 자신을 살피며 자신들의 영성생활을 새롭게 쇠신하는 일종의 수련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외판웃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던"(루카 5,16)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너희(제자들)는 따로 외판웃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통이 되었습니다. 피정이란 말마दा가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피정에는 두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세상(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거리를 두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들 밖으로 나와 잠시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이전에 보거나 느끼지 못한 점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나 직장과 사회생활 안에서 엄고고철친 채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도 뜻밖에도 그 '문제'들 밖에서 쉽게 찾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잠시 벗어나 거리를 두는 행위는 토양의 공극과 같이 우리 삶을 보다 유쾌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피정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각자의 존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지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Imago Dei"): 창세

1,26) 믿기 때문에 참다운 자아(眞我)를 찾고자 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만남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는 삶의 방식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피정의 흐름은 토양의 공극처럼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과 노력을 통해 개인주의와 물질 지상주의에 젖어가는 지금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사회에 생명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수련의 기간이 있겠지만, '피정'은 마치 삶의 '공극'과 같은 시간이지요. 때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토양의 공극이 그 근원이 되어 주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가면서 '공극'과 같은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끔은 세상의 일상에서 오는 걱정과 짐에서 벗어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바라보고, 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찾아가는 길에 선포 나서서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공극'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고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2017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선호 비중은 75.7%에서 72.5%로 낮아졌지만 식도락 관광은 51%에서 58.2%로 높아졌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스타일이 패키지, 쇼핑 위주에서 자유, 미식 관광 형태로 바뀌에 따라 여행시 맛집 투어가 보편화 되었다. 서울 토속촌 삼계탕은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 일본만 한국관광 안내서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계 총수들과 만찬을 한 대표적 맛집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맛집 소개로 유명한 책자가 미쉐린 가이드(미슐랭 가이드라고도 한다)이다. 자동차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사가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던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에 맛집 안내가 의외

남도 음식의 세계화

로 호평을 받아 레스토랑 정보만 전문적으로 소개한 미쉐린 가이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매년 130만 부 정도로 팔린다고 한다. 최고 등급인 미쉐린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뜻이다. 파리에서 열 개 레스토랑이 선정되어 가장 많고 홍콩, 뉴욕이 여섯 개로 2위이며 우리나라는 강남구 호림아트센터 지하에 위치한 가온, 신라호텔 라연 등 두 곳이 받았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탐방 투어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는 파리와 홍콩이다. 파리가 미식 관광의 메카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왕실과 귀족의 몰락으로 요리사들이 실직하자 이들이 레스토랑을 개업하면서 프랑스 궁정, 귀족 요리가 전 국민에게 보급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요리는 2010년 최초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프랑스는 음식과 와인이 앞으로 경제와 관광 산업을 이끌 주체로 설정하고 보르도를 중심으로 미식과 와인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홍콩이 미식 도시로 급부상하게 된 데는 모택동의 역할이 컸다. 모택동은 요리를 부르주아지의 사치를 위해 존재하는 인민의 기생충이라고 탄압하였다. 중국의 공산화가 진행하면서 광둥, 사천, 북경, 상해 등 전국의 요리사들이 탄압을 피해 조계인 홍콩으로 피난하였다. 이들이 홍콩에 개업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미식 도시로서 평판을 얻었다. 한식은 육류보다는 채소를 주로 사용하며 열량이 낮고 조리법도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된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 필자가 2012년 워싱턴 문화원장 재임 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식당에서 모임을 갖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필자에게 동두천에서 미군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김치에 중독이 되어 자신은 매일 자기 전에 한 컵의 김치 국물을 마시는 등 한식팬이라고 하면서 부대찌개도 좋아하지만 전라도 음식을 특히 좋아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김치 등 한식 판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등에 힘입어 매년 6~10%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식당은 2017년 기준 92개 국에 3만 3499개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86개 국에 9253개와 비교해 8년간 2.6배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현지화, 고급화도 두드러졌는데 전체 한식당의 86%가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현지 상권에 자리 잡았고 뉴욕에서도 미쉐린 가이드 별을 받은 한식당은 정식(Jungsik) 등 3군데나 된다. 음식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이 응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코드이다. 프랑스인은 와인으로, 남부 이탈리아인은 토마토 소스를 식사 때마다 곁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남도 음식은 호남의 멋과 한과 정성을 보여주는 세계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이며 실제로 맛과 인심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수출을 위한 상품 개발, 관광 자원과 연계한 음식 발굴 등 남도 음식의 세계화가 최우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社說

4대강 사업 실패 재확인 이젠 보 해체 검토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감사원은 그동안 세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성과가 어떤지는 이번 감사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2010년 1차 감사는 사업 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012년 2차 감사는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2013년 3차 감사는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엔 실시한 4차 감사는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쳐 4대강 사업이 진행됐고 성과는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감사라고 할 만하다.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명박(MB)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사업이 시작됐고 관련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동원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 등 4대강 16개 보(泐) 설치도 MB가 지시했고 완공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

기면서 환경평가도 대충대충 하는 등 시작부터가 부실했다. MB가 대운하에 집착해 수심을 6m까지 파도록 깨알 글씨로 지시한 것도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그러나 31조 원의 거액을 들인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실패한 대규모 토목공사일 뿐이었다. 보 설치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화학적산소수요량(COD)이 개선된 곳은 한 곳에 그쳤고 일급 곳은 설치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는 COD뿐만 아니라 조류 농도도 나빠져 실패한 4대강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다.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보 해체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보 해체를 놓고 벌이는 찬반 논란은 이번 기회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MB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사업이란 사실이 처음 확인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남해안 경관길' 인물·해양 유적 답아야

전남도가 해안 자원을 활용한 세계 수준의 '서남해안 경관 길'(Scenic Byway) 조성에 나선다. 미국의 경관도로(Scenic Byway), 스위스 모빌리티, 아일랜드 타이디 타운, 일본 오노미치 U2 등을 모델로, 무려 959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서남해안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갯벌 등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숨겨진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해 인도·농로 등 셋길을 따라 개발한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애초 '관광 전남'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낙후 SOC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도 2호선 단절 구간인 안좌도·비금도·하의도·도초도·자라도·장산도(총 9.45km) 연결에 총

예산의 92%가 넘는 8834억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예산이 1조 원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일단 운영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예산 계획을 세워 회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소프트웨어 없이 SOC사업만 추진하고 끝낼 수 있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서남해안 경관 셋길에는 정도 천년을 맞은 호남의 역사와 인물, 해양 유적을 담을 수 있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유명한 경관도로들은 대부분 주변의 자연 환경 유지는 물론이고 문화와 역사·고고학 등의 요소를 기미시커 다양

無等鼓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대세다. 지난 2012년 손학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저녁이 있는 삶'도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철학자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자는 말이나 다를 없다. 요즘 미국에서 뜨거운 용어는 '한정 노동'(work with limits)이다. 자신의 행복과 개인적 취미 등을 즐기기 위해 일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뜻이다. 한정 노동자들은 직장 등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는 '완전 고용'의 형태를 거부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자청한 근로자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자국 내 파트타임 노동자 28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을 한정 노동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에 행복지수는 높다고 한다. 한정 노동이 가능한 것은 '긱 경제'(gig economy)라는 새로운 생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앱(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과 웹사이트(web site) 등

을 기반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경제 구조다. 택배 회사에서 일자리 앱 등에 배달이라는 일감을 올려놓으면 노동자가 선택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구조에서는 고용주인 사용자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계도 모호하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유사한 근로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한정 노동은 낯선 개념이다. 완전 고용을 정상으로 보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불완전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비정규직', '디지털 프리랜서'라는 부정적 용어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정 노동은 그러나 일단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는 될 것 같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칼퇴족'이 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이 대세라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저녁의 삶'이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준비 없이 맞는 잉여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통) 구독 신청(별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채부 220-0652	기획관 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